

터키지역 전통염색 카페트의 문양 특성

신 정 숙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Dyeing and Patterns on Turkish Carpets

Jung-Sook Shin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3. 12. 30.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weaving, traditional dyeing, fiber material, pattern how carpet developing according to Turkey area for using the data that can rear to the export strategic industry for carpet production and development that is correct in culture. The result are followed:

- 1) Life of the age was expressed in color and pattern using according to geographical environment, climate, lifestyle, religion etc.
- 2) In the case of weaving, there is Kilim, Soumak that appears only weft on the surface as plane weaving without knot and carpet of knotted pile weaving and knot of carpet is duplex knot difference with carpet of the other country.
- 3) In the case of textile material, there is use most wool fiber that can get easily from breded sheep by nomads.
- 4) In the case of dyeing, did the local traditional color to use dye extracting in dyeing material that can get easily in the area. Red that can extract in madder that can get easily in which area of Turkey, dark navy blue of indigo dye that indigo plant fermentation and cream beige that is wool's natural color were exposed representative traditional color of Turkey carpet.
- 5) Pattern was advanced uniquely as culture of the area; weaving person's sensitivity and desire are reflected through centuries. Amulet, riches & honors, fecundity and happiness appeared most pattern in any area.

Key Words: carpet(카페트), kilim(킬림), soumak(수막), traditional dyeing(전통 염색), pattern(문양)

I. 서론

카페트 (Carpet)는 라틴어의 “털을 빗질하다” 라는 뜻을 가진 Carpita에서 나온 말이다. 인류가 원

시생활을 영위할 때부터 지면의 습기를 방지하고 보온을 목적으로하여 깔개로 사용한 동물의 가죽 등이 그의 원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카페트 생산지는 터키, 페르시아, 중앙 아시아이다.

카페트가 터키에서 발달한 이유는 실용적인 이유가 크다. 터키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아주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변

화하는 온도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였고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카펫이다. 또 터키에 살던 유목민들의 천막 바닥에 유일하게 깔려 있던 카펫은 땅을 편평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양 특유의 냄새 때문에 독충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 주는 생활 필수품이었다. 천막을 치고 바닥에 카펫을 깔면 그대로 방이 되기 때문에 카펫을 실내장식을 위한 예술문화의 하나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또한 카펫은 마루와 벽이 될 수 있고, 커튼이나 말안장도 될 수 있어서 단지 장식품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생활에서 중요한 실용품중의 하나이었다. 터키에서 카펫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나 문헌상의 기록에 의하면 셀쑈(Seljuk)터키 시대로서 13세기 마르코 폴로가 이곳을 다녀가면서 카펫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¹⁾.

문양특성에 따라 카펫 생산은 크게 두지역으로 분류한다.

꽃문양은 주로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사용된 반면에, 카프카스 및 중앙 아시아의 투르크 지역은 기하학적 문양을 더 선호하였다. 터키에서는 기하학적 문양을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두종류의 양식이 모두 애용되었다.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메트가 그림에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였기 때문에 터키는 정통파라고 불리는 이슬람교에 속해 있어서 코란의 계율에 따라 동물의 무늬를 사용하지 않고 아라베스크(Arabesques)²⁾ 무늬가 발전하게 되었다. 예배용 깔개로 제작된 터키 카펫은 그 디자인의 정교함으로 유명한데, 거의가 메카로의 예배 방향을 알리는 미흐랍(mihrab)³⁾을 아치(arch)모양으로 장식하고 있어서 무늬에 종교적 계율이 표현되어 있다. 터키 계통의 카펫은 지방식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유풍을 계승하고 있어 디자인을 보면 산지를 알 수 있다²⁾.

카펫은 장식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순한 물품이라기 보다는 고가의 품격을 갖춘 예술작품이므로 생활이 풍요로워질수록 바닥에 까는 생활예술로서 카펫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리라고 본다. 카펫에 관한 연구는 물성^{3,4)}사용실태⁵⁾, 카펫에 의한 독성 및 오염에 의한 실내공기^{6,7,8)} 문양 및 역사^{9,10,11,12)}, 개발방향 및 디자인개

발^{13,14,15)}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양에 관하여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문양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생활예술로서 카펫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문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하나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카펫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중의 하나인 터키의 카펫의 직조, 전통염색, 섬유재료 및 지역에 따른 전반적인 문양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터키 카펫관련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2003년 12월 13일-2003년 12월 22일 기간 동안 터키 이스탄불의 돌마바스 궁전의 카펫 전시실, 그랜드 바자르, 카펫 전문점, 갑바도기아의 카펫 제조업체를 방문 조사하였고, 길림 카펫 1장을 수집하여 염색상태를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터키지역의 카펫 발생특성

기원전 2,000년 중앙아시아 남부에서 기원한 터키 민족의 조상은 중국 고전에 나오는 "훈"족(돌궐족)이며, 중세기에 아랍지역을 횡단하여 서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아랍문자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터키 국토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남북으로 연계하는 교통과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삼면이 흑해와 에게해 그리고 지중해로 둘러 쌓여있으며, 고대 히타이트 문명을 시발로 그리스,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로마, 비잔틴(동로마)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고대의 유적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터키를 살아있는 자연 박물관이라 하였다.

전세계는 동양권 카펫(Oriental Carpet) 즉 이란, 파키스탄, 중국, 소아시아권의 장식성 위주의 수직카펫(Hand made Carpet)와 서구권 카펫(European Carpet) 즉 미국, 영국, 벨기에, 서독, 덴마크 등의 실용성 위주의 기계적 카펫(Machine made Carpet)가 세계 카펫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카페트와 렉의 기원은 B. C. 24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나톨리아로 이주한 터키인들에 의해 이 지역에 소개되어졌다. 아나톨리아에 살던 고대인들은 거주하던 집의 바닥에 카페트를 깔았고, 벽에는 가죽이나 염색한 천을 걸어 장식했었다. 이 천들은 주로 신비적이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문양으로 넣어 직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실을 꼬고, 천을 직조하는 일을 여성들의 신성한 일로 여겼었는데, 아나톨리아의 카페트와 렉은 기교적인 면에서 뛰어나 동쪽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서쪽의 그리스 식민지 지역에 이르기까지 선호되는 상품이 되었다.

터키인의 뿌리가 되는 모슬렘 집단은 8C에 트레이스 쪽을 경유해서, 11C에는 이란, 이라크로부터 왔다고 알려진다. 중앙아시아로부터 이동하면서 중국의 노자 사상과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이란쪽에서는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이 그들 삶의 문화에도 더해졌다. 아나톨리아의 각 지역에 자리 잡은 터키인들은 중앙아시아로부터 계속 이어오던 전통들에 더하여진 문화들을 그들이 짜던 카페트에 반영하였다. 아나톨리아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갑바도기아는 역사적으로 동쪽과 서쪽의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교차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정복, 무역, 이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지역에 문화의 모자이크를 창출하였다.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1271년 아나톨리아로 알려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여행한 후 "동방견문록"에 이 지역의 카페트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그 기하학적 문양이나 동물 문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극찬하고 있다. 터키 카페트의 기술은 베니스를 출발한 마루고가 예루살렘을 거쳐 아르메니아, 도루고마니아 지방을 다녔기 때문에 실제의 견문을 전하고 있다. 세계에 비할데 없는 아름다운 카페트¹⁶⁾ 중의 하나인 터키 카페트가 페르시아 카페트에 비해서 거칠고 가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페르시아, 터키 카페트 등이 16C까지 인도와의 교역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15-6C에 터키산 카페트는 유럽 화가들의 그림 속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더욱 유명해진다. 16C초에 활약했던 독일의 미술가 하나스 홀바인은 기하

학적 문양의 카페트를 그림에 자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기하학적 문양의 카페트는 '홀바인 카페트'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17C에 네덜란드의 화가인 베르메르(Vermeer)는 자신의 그림에서 카페트는 바닥에 깔기엔 너무나 귀중한 것이어서 성모와 왕족의 발 아래가 아니면 깔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기에 이른다¹⁷⁾.

2. 카페트 직조법

매듭기법에 의한 손으로 엮어 만든 수직카페트의 주요 생산국은 터키, 중국, 이란, 파키스탄이다. 매듭 카페트의 기술은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들 중앙아시아 유목 민족들은 동식물의 문양을 탄 기하학적 구도로 장식된 작은 카페트를 주로 직조하였다. 터키 카페트는 매듭이 있는 파일(pile)직조 형태의 카페트와 매듭이 없고 평면직조 형태이면서 표면에는 위사만 나타나는 킬림(kilim), 수막(soumak)이 있다.

1) 파일직의 카페트

다른 나라의 카페트와 다른 점은 카페트의 매듭이 2중 매듭이라는 점이다. 카페트의 품질은 매듭의 숫자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듭의 숫자가 많을수록 카페트를 직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교한 표현, 내구성 및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흔히 잘 알고 있는 기계로 제작한 카페트는 매듭이 없고, 뒷부분을 접착제로 붙인다.



터키식



페르시아식

<그림1> 매듭형태

2) 킬림

빔에 장력을 주어 같은색의 경사를 정경 한후 색상이 다른 위사를 교차시켜 도안을 형성하면서 직조한 카페트이다. 따라서 이들의 조직은 경사의 한울(1 line)을 따라서 나타나있는 간격이 대개 동일하다. 대부분 직선을 사용한 기하학적인 문양표현

이 가능하며 꽃, 잎과 같은 곡선의 문양표현은 어렵다. 매듭이 없는 킬림의 조각을 이용해서 가방이나 베개를 만들기도 한다¹⁸⁾.

3) 수막

킬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직조하지만 무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울 혹은 두올의 경사에 위사를 전폭에 걸쳐서 추가로 투입하는데 이들 위사가 경사의 간격을 없애준다. 가장자리는 대개 한 개의 주요 밴드와 두 개 내지 세 개의 보조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뒷면은 길이가 수 cm의 끝(end)으로 인하여 생긴 많은실로 덮여있고 카페트를 완성한 다음 위사를 자르고 난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3. 전통염색

셀죽 (Seljuk), 오스만 (Ottoman) 시기에 전통염색은 상업과 예술에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15C에는 염료를 아나톨리아에서 유럽으로 수출하였다. 1868년에 유럽에서 화학염료를 생산하여 1882년 터키에 수입되었지만 터키의 유목민들은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전통염색을 고수하였다. 터키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붉은색 계통의 염료를 사용하지만 페르시아에서는 초록색 계통이나 노랑색을 주로 사용하며 카프카스 지역, 특히 아르메니아인 들은 푸른색을 선호한다.

터키 카페트는 바탕에 주로 붉은 색으로 염색된

위사를 사용하거나 양모의 천연색, 회색을 사용하였다. 붉은색은 중앙아시아나 다른 여러 지역에서와 같이 생명, 부귀, 태양 등으로 상징된다. 신성한 색인 녹색은 초기에는 기도자 띠에만 사용되었으나 후기에는 거의 모든 카페트에서 나타났다. 또한 원색을 사용하고 직선의 무늬를 사용하여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을 염색할 때는 실타래를 통째로 염색하지 않는다. 실의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길게 염료 통 안에 넣어 염료에 적신후 다른 쪽으로 나오게 하여 햇빛이나 바람에 의해 건조하면서 염색하는데, 바람이나 햇빛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색조의 염색이 나오며 이것이 터키의 카페트를 더욱 화려하고 풍부하게 해준다. 19C 이후 터키의 많은 지역에서는 카페트 생산이 중단되었고 상업적인 이윤만을 추구하여 화학염료로 염색한 저 품질의 양모를 사용하여 카페트의 질이 저하되었다¹⁹⁾.

1981년 이스탄불의 마르마라 대학교 (Marmara University)를 중심으로 직조부흥운동이 일어나 천연염료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의도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을 단위로 각 지방특유의 전통성에 의하여 패턴을 직조하고 천연염료를 사용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 예술적, 민족적 감성이 있는 카페트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의도하고 있다²⁰⁾. 수집해온 킬림카페트의 염색상태를 물세탁에 의해서 관찰해본 결과 터키의 모든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구할 수 있는 꼭두서니에서 추출한 붉은색 염료는 세

〈표1〉 터키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 염료와 염재

염료	염재	비고
붉은색	꼭두서니 (madder: Rudi tinctorum L)	흔하게 자라는 식물이며 재배하기도 한다. 핑크계열에서 농색의 붉은 색까지 다양하게 추출된다.
	코치닐 (cochineal)	아나톨리아에서 많이 사용한다. 노팔 (nopai) 선인장과 식물에 기생하는 연지벌레 암컷을 말려서 만든다.
노랑색	사프란 꽃 이스파릭 (isparuk) 담배잎	
연두색	오디나무	
밤색	털 익은 밤이나 도토리 껍질	밤색염료는 대부분 세월이 흐르면 색이 바랜 듯한 느낌을 준다.
검정색	쇠의 녹	양모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양모의 염색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청색	인디고식물	발효시켜서 얻는다.
흰색, 베이지색	양모천연의 색을 사용	
기타	산화철 (iron oxide)을 함유하는 흙, 배나무잎, 포도잎, 아카시아꽃, 복숭아잎, 야생장미, 야생민트 (박하), 레이지, 털갈매나무, 마르멜로 과일, 플라타너스잎, 복숭아잎, 보리수 (참피나무)잎, 석류열매와 잎, 등대풀, 금어초 등의 천연염재가 전통염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탁동안 내내 염색건뢰도 1-2급에 상응하는 탈색현상이 일어났지만 인디고염 등은 전혀 세탁에 의해서 탈색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보아 천연염료와 화학염료를 모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섬유재료

카페트는 양모, 견, 면섬유로 직조되는데 섬유종류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1) 양모섬유 카페트

유목민들은 보통 봄이 끝나는 시점에 양털을 깎는다. 깎기 전에 먼저 양을 강가나 우물가에서 목욕시킨다. 털을 깎고 난 후에도 다시 한 번 양털을 깨끗한 물에 세탁한다. 세탁된 양털을 발로 밟아 물기를 짜낸 후 말린다. 이렇게 말린 양모를 손끝으로 꼬임을 주어 실을 자아낸다. 양모 카페트는 양의 특유한 냄새 때문에 독충들이 카페트가 깔린 천막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양모 카페트는 매듭의 숫자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되어 있다. 양, 염소에서 얻은 모사는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섬유재료이었다.

2) 견섬유 카페트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져 신비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가는 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디자인도 정교하다. 실크 카페트는 제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가이어서 대중화된 제품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성스러운 곳이나 궁전을 장식하는 데에 주로 사용되었다. 밀도가 조밀할수록 좋은 카페트가 되는데, 고급 견섬유 카페트는 인치당 500-1,000올이 들어가 있다. 견섬유는 천연의 우아한 광택이 있는 반면 강도와 견뢰도가 낮아서 쉽게 약해지고

변색되는 단점이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를 강조할 때 품질이 좋은 모섬유와 병용하여 사용하여 최고급이 카페트를 직조한다.

3) 면섬유 카페트

면섬유로 직조한 것은 양모보다는 매듭의 숫자가 많아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여 기하학적인 문양보다 더 복잡한 꽃무늬 디자인이 많다^{21,22)}.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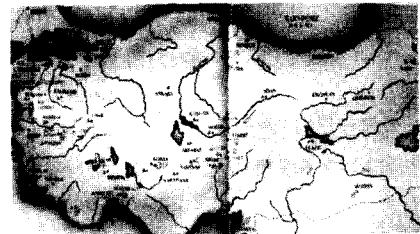
본 연구는 터키관련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2003년 12월 13일-2003년 12월 22일간동안 터키 갑바도기아의 카페트 제조업체 1곳, 이스탄불의 돌마바스 궁전 카페트 전시실, 카페트 전문점 4곳, 그랜드바자르 5곳을 방문 조사하였다. 갑바도기아의 카페트 제조업체에서는 카페트에 사용하기 위한 견섬유를 생산하는 공정, 천연염색을 하기위한 염재, 카페트 수직공정, 각지의 특성에 따라 생산된 카페트 상품을 관찰조사하였다. 카페트 전문점에서 밀을 주제로한 파머스 (farmer's)문양의 킬림 카페트 1매를 수집하여 염색상태를 분석하였다.

IV. 생산지역에 따른 카페트 특성

주거생활용품의 하나인 카페트는 지리적 환경, 기후, 생활양식, 종교 등에 따라 문양과 사용하는 색상으로 그 시대의 생활상을 표현하여왔다. 문양은 지리적, 역사적, 종교적 특색을 반영하면서 독특하게 변화하고 발전하여 현재에도 그 당시의 생활상과 감정을 엿볼 수 있다. 터키지역의 카페트는



〈그림2〉 굵은 물속에서 고치로부터 실머리를 찾는공정
갑바도기아의 카페트 제조공장에서 촬영



〈그림3〉 터키의 카페트 주 생산지
A. Naci Eren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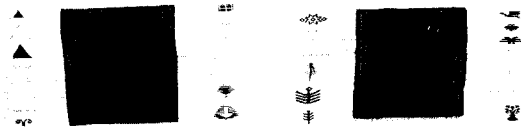
지방식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유풍을 계승하고 있어 문양을 보면 그 산지를 알 수가 있다.

1. 카페트 생산지

2. 생산 지역에 따른 염색 및 문양 특성

1) 약시베디르 (Yagcibedir)

14C 이래로 베르가마 (Bergama)에서 직조되었다. 베르가마는 서부 지중해로부터 약 30마일 떨어진 고대 페르가뭄 (Pergamum)유적지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유목민, 반유목민에 의해서 생산되었다. 압연지별레와 인디고 염료로 염색한 베르가마 카페트가 15C 이스탄불에서 판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도 농색의 붉은색, 군청색으로 염색한 섬세한 양모를 사용하여 약시베디르 (yagcibedir)카페트를 직조하고 있다. 위사는 항상 농색의 붉은색을 사용한다. 가장 일반적인 모티브는 독수리, 별, 옥수수이었다.



〈그림4〉 약시베디르 (Yagcibedir)카페트 문양

1)삼각형: 유목민들은 카페트에 신비하고 아름다운 삼각형 문양을 직조하였는데 결점이나 고통이 없이 카페트를 완성하고 악마의 눈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었다.

2)옥수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였다.

3)독수리: 하늘의 지배자이고 힘과 고귀함의 상징이었다.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나르는 능력 때문에 하늘과 건강한 생활을 의미하였다.

4)밀 다발: 재탄생과 번영을 의미한다. 흙속에 흩어진 한 개의 낱알이 새로운 수백개의 알갱이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양을 직조하는 여성은 그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에 관하여 많은 수확을 염원한다.

2) 밀라스 (Milas)

남서부 에게해안 밀라스 주변에서 생산되는 카페트를 총칭하며 대부분 안티제품이다. 좋은 상태로 잘 보존된 카페트들은 아주 고급품으로 희귀하고 고가이다. 주로 가는 모사를 사용하였고 장식적이다. 어떤 모티브의 기원은 오토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밀라스는 담배를 재배하는 주요한 지역으로 담배 잎에서 염료를 추출하였다. 밀라스 카페트의 주요색상은 농색의 노랑색, 담색의 갈색, 올리브 그린색, 담적색이다.



〈그림5〉 밀라스 (Milas) 카페트 문양

1)노랑색: 태양, 황금, 익은 밀, 갓구운빵, 풍요로운 수확의 색이고 풍요와 건강한 삶을 의미한다. 하늘의 성스러운 푸른색을 통하여 여과된 노랑빛은 무한한 삶을 상징한다.

2)거위발: 거위발은 행운을 가져오는 원 혹은 삼각형의 내부라고 믿는다. 거위발끝의 각각은 신성, 생산, 번영의 지배를 의미한다.

3)화살: 용기와 영웅심을 의미한다. 카페트에 이러한 문양을 직조하는 여성은 그녀의 연인이 강하고 용기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4)인간: 종종 카페트를 직조하는 여성은 그녀 자신, 남편과 부인, 어머니와 딸과 같은 가족의 일원을 문양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양은 아기를 기대하는 직조자의 마음을 나타낸다.

3) 도세밀티 (Dosemealti)

오랜 직조 전통을 가진 도세밀티 카페트는 아나톨리아에서 가장 흥미있는 카페트를 직조한다. 일반적으로 붉은색, 짙은 갈색, 흰색을 사용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모티브는 낙타와 전갈이다.

1)전갈: 전갈은 유목민들에게 자연재해를 가져온다. 전갈은 종종 텐트를 파손시키기도 한다. 전갈에 쏘이면 매우 고통스럽고 때로는 치명적이기도 하다. 전갈 문양을 직조한 카페트는 이러한 별



〈그림6〉 도세밀티 카펫 문양

레로부터 보호되기를 의미한다. 유목민들은 카펫에 전갈문양이 있으면 전갈이 접근할 수 없다고 믿었다. 또한 전갈은 자만과 자유의 상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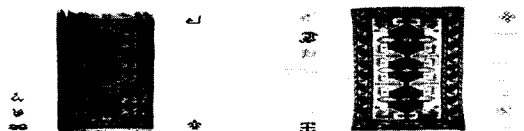
2)날인 (stamp): 모든 종족은 그들의 카펫과 킬림에 독특한 표시를 한다. 이러한 표시는 종족의 결속을 강하게 하고 장려할 뿐만 아니라 카펫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카펫과 섞인 경우에도 쉽게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

3)낙타: 낙타는 유목민의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카펫에서 낙타를 문양으로 사용하는 것은 순종을 하는 낙타가 오랫동안 인쇄심 강하게 부족들의 짐을 운반하는데 대한 감사를 나타낸다.

4)생명의 나무: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해나간다고 믿는 크고 굵은 아름답디나무이다. 생명의 나무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고, 인간이 지상에서 하늘로 여행할 수 있는 계단으로 여겨지며 가지에는 새떼들이 있다. 생명과 죽음을 나타내는 생명의 나무는 아나톨리안 모티브로써 카펫에 직조되기도 한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는 때가되면 항상 날수 있는 생명의 새를 나타낸다. 죽은 후에 영혼이 끝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나무 가지위로 날아온다고 믿는다.

4) 신딜기(Sindirgi)

발리케지르 (Balikesir)의 카펫중에서 신딜기 카펫은 공예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모티브는 조밀한 매듭으로 인하여 양면이 모두 시각적이다. 공작과 어린양의뿔이 자주 사용되는 모티브이다. 청색과



〈그림7〉 신딜기(Sindirgi) 카펫문양

베이지가 카펫을 매우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1)거위: 산 거위라는 서사시에서 나오는 신성한 동물의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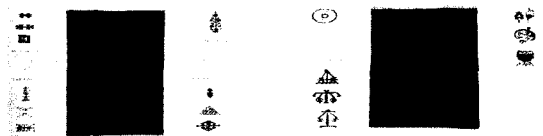
2)청색: 하늘과 바다의 무한한 깊이와 신비의 상징이며 악마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색이었다.

3)천국의 공작새 (불사조): 체세포를 생산하는 생명의 물은 불사조가 아나톨리아로 가져온다. 상상의 새인 불사조는 길고 붉은 황금색 머리를 가졌다. 생명이 끝나갈 무렵 나뭇가지에 있는 보금자리를 태워서 스스로 타버린다. 이리하여 새로운 불사조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불멸의 상징이다.

4)용: 하늘, 바다, 산 등 모든 지역,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신성한 상상의 동물인 용은 힘과 위엄의 상징이고 입에서 불을 내뿜을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개의 머리, 다리, 꼬리가 달린 불가사의한 외형을 가졌다고 믿었다.

5) 야히알리 (Yahyali)

아나톨리안 여인들은 그들의 모든 정서와 감정을 카펫의 모티브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표현하였다. 갑바도기아에서 가장 중요한 카펫직조 중심지중의 하나인 야히알리의 카펫 직조자들은 농색의 붉은색과 청색과 같은 어두운 색을 사용하였다. 야히알리에서 사용한 천연염료는 포도잎, 야생민트 (박하), 호두나무 껍질과 도토리에서 추출하였다.



〈그림8〉 야히알리 (Yahyali)카펫 문양

1)헤어밴드 (hair band) : 이 모티브는 빈번히 결혼하기를 기원하는데서 직조되었다.

2)늑대입: 유목민들이 빈번하게 우연히 마주치는 야생동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원하는 데서 사용한 문양이다.

3)다산의 모티브: 수많은 낱알이 열리는 식물과 과일은 작은 점형태로 카펫에 직조된다. 이러한 모티브는 생식력과 풍요를 의미한다.

- 4)장미: 백색의 장미는 사랑을, 붉은색의 장미는 정열을, 야생장미는 동경을 의미한다.
- 5)양귀비: 신비스러운 힘과 무한한 잠을 의미한다.
- 6)귀고리: 결혼을 염원하는 상징이다.
- 7)목초지의 사프란 (saffron): 초원의 셋노란 사프란 꽃은 즐거움, 기쁨을 상징한다.

6) 타스피날 (Taspinar)

중앙 아나톨리아의 전형적인 카펫인 타스피날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밝은 색을 사용한다. 모든 다른 카펫에서 처럼 직조자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염료를 사용하였다. 주요색은 인디고청색, 벽돌색, 갈색이었다. 타스피날 카펫은 아나톨리아에서 생산되는 가장 아름다운 카펫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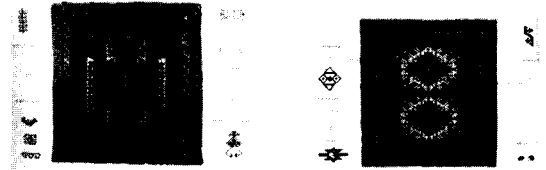
〈그림9〉 타스피날 (Taspinar) 카펫 문양

- 1)뱀: 매년 허물을 벗는 뱀의 특성 때문에 재탄생, 영원불멸, 무한성을 상징한다. 신화에 의하면 뱀은 사람에게 유용한 식물에 대한 지식을 주기도 하지만 영원불멸의 식물을 발견하고 먹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 2)신성한 빛: 신성, 발광체, 끝없는 천국의 빛을 상징한다. 삼나무: 향기와 상록수처럼 신선한 색과 함께 긴 생명력으로 변함없이 생명나무의 모티브로써 아름다움과 무한성을 상징해왔다.
- 3)산: 태초부터 산은 하늘과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초인적인 사람이나 신의 집으로 생각해왔다. 따라서 산은 카펫의 가장 일반적인 모티브중의 하나이고 신성함의 상징이다.

7) 칼스 (Kars)

칼스 카펫은 동북 아나톨리아에서 직조된 고품질의 카펫이다.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독수리 모티브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여왔다. 이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양은 검정과 갈색의 거칠고 굵

은 모섬유를 생산한다. 결과적으로 칼스 카펫은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섬유의 천연색을 사용한다. 칼스 카펫만의 직조방법으로 인한 품질, 강도, 내구성 때문에 오늘날에도 선호되고 있다.



〈그림10〉 칼스 카펫 문양

- 1)중적 (hide): 황금기둥의 신화, 힘, 권위, 권력의 상징이다.
- 2)숫양의 뿔: 권의, 힘, 건강, 행복의 상징이다. 남성의 생식력, 주어진 생명, 보호를 상징한다. 숫양 뿔의 문양을 장식한 카펫은 여성의 세계보다는 남성의 세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 3)테두리: 일반적으로 3, 5, 7, 9와 같은 숫자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숫자는 카펫 가장자리에 나타낸다. 3이라는 숫자는 땅, 하늘, 물, 신성, 생산, 번식력을 나타낸다. 5라는 숫자는 다섯 손가락, 하루에 다섯번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세븐레벨 (seven levels) 을 의미한다. 거의 모든 터키 카펫은 이러한 문양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장자리를 장식한다.

8) 니데칼스 (Nigde kars)

아크사라이 (Aksaray)는 중요한 카펫 생산지이다. 13C 아랍대상들은 이 지역의 카펫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인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아직도 주요한 카펫은 보존되어있고, 다른 칼스 카펫이 니데에서 생산되고 있다. 직조법은 파스텔 색이 선호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드러움이 첨가되었다.

- 1)나르는 새: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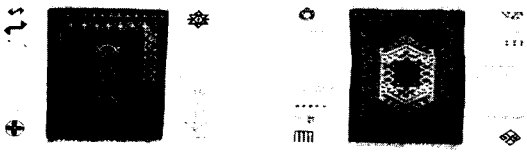
〈그림11〉 니데칼스 카펫

2)옷장: 신부의 혼인 지참금인 꿰는 결혼을 하려는 신부의 혼수감을 상징한다. 어린시절부터 시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준비한 레이스, 자수와 카페트 같은 모든 것을 나타낸다.

3)허리위에 얹은 손: 항상 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은 모습으로 카페트에 표현된다. 모성애는 생식력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고 보호하는 것과 같은 신성한 의무를 상징한다. 오늘날 이러한 모티브를 카페트에 직조하는 여성은 많은 어린아이, 동식물의 번식, 가정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직조를 한다.

9) 운트닥 코작 (Yuntdag kozak)

작은 문양과 풍부한색을 사용한 이 카페트는 에게해 유목민들의 전형적인 예술적 감각을 반영한다. 품질이 좋은 모와 공예가 적인 것 외에도 아름다운 색채조화를 이루고 있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문양을 부조시킨다는 것이다. 카페트 직조를 끝마쳤을 때 직조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문양의 의미가 눈에 띠도록 직조한 각 모티브를 양각시킨다. 모티브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이 카페트는 놀라울 정도로 참신하고 색채가 풍부한 그림처럼 보인다.



〈그림12〉 운트닥 코작 카페트

1)점화기: 행복을 방해하는 좋지 않은 사건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염원하면서 직조한다.

2)행운의 바퀴: 가장 오래된 모티브중의 어떤 것은 다른 시대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행운의 바퀴 모티브 기원은 B.C.5000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떤 시대에는 4명의 바람의 신을 의미하였고 현재는 회전하는 지구, 운명의 윤회, 행운과 사랑의 바퀴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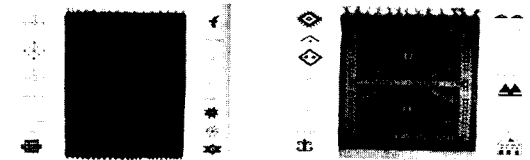
3)생명의 물 (컵): 아나톨리아인의 전설에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불멸하고 늙고 허약해진 육체를 강하고 젊어지게 하며 못생긴 여인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모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물은 일반적으로 물 혹은 컵 모티브라고 하여 카페트 가장자리에 표현한다. 컵안에 있는 생명의 물은 영원불멸하고, 물은 없어서는 안될 생명의 근원으로써 신성하게 여겨지고 있다.

4)손, 손가락과 5의 숫자: 다섯 손가락을 나타내는 숫자 5는 악마의 눈에 대한 경계를 표시한다. 5개의 가장자리 줄무늬, 다섯 손가락이 있는 손, 다섯 개의 점으로 표현한다.

10) 유르크 (Yoruk)

유목민 카페트는 5곳의 해안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카페트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서로 매우 다르다. 아나톨리아의 한 지역에서 발견된 카페트는 다른 지역의 다른 계절에 생산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유목민들은 남부와 남서부의 아나톨리아에서 몇 달동안 겨울을 보내고 여름에는 시원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유목민 여인들은 여름에는 손으로 양모 실을 방직하고 염색을 한 후 겨울에는 그들의 예술적인 감성을 넣어 카페트를 직조한다. 유목민 카페트는 여전히 좋은 품질의 카페트로 인정받고 있다.



〈그림13〉 유르크 (Yoruk) 카페트

1)별(오각형, 육각형, 12각형): 육각형의 별은 인간의 신비뿐만 아니라 우주를 표시한다. 오각형별은 미상한 재주를 상징한다. 12각형의 별은 그별의 신성함 때문에 셀추-오토만 장식에서 비너스를 표시하기도 한다. 비너스는 행운과 재생을 의미한다. 8각형의 별은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생명선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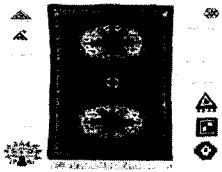
2)방향: 동서남북 우주의 4방향, 4방향에서 부는 바람을 표시한다.

3)텐트가정: 가족의 행복을 나타낸다.

4)눈: 성스러운 색인 청색의 중심에 있는 점이 눈을 상징한다. 눈은 지역마다 다양하게 표시하지만 기하학적인 형태이다. 눈은 삼각형, 사각형안에 있는 점으로 표시된다.

11) 서반 (Sirvan)

독특하고 풍요로운 모티브 구성을 포함하는 서반 카펫은 모두 기하학적인 문양이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모티브는 아름다움, 생식력, 생산성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다른 유목민들 카펫처럼 좋은 품질과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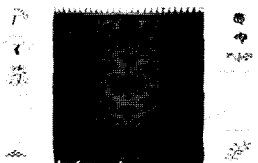


〈그림14〉 서반 (Sirvan)

1)새눈: 악마의 눈은 초자연적이고 파괴적이며 심리적으로 치명적인 위력을 갖는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해를 미치고 질병을 가져오며 무능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눈의 형태를 검정바탕에 흰색의 점, 모티브안에 삼각형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눈 문양있는 카펫을 마루 위에 놓으면 악마의 눈으로부터 직조자의 행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3, 5, 7과 같은 숫자, 삼각형, 손, 7개의 가장자리 라인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12) 바스막시(Basmakci)

오늘날 바스막시 카펫은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고 에게해와 아나톨리아 모티브를 모두 사용한다. 흔히 청록색과 분홍색을 많이 사용한다. 어떤 모티브의 기원은 17C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위사 뿐만 아니라 매듭도 모사를 사용하였다.



〈그림15〉 바스막시 카펫

1)석류: 석류는 아나톨리아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천국의 과일이다. 새로 맞이하는 신부의 집안에 석류 알을 흩어놓으면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하고 다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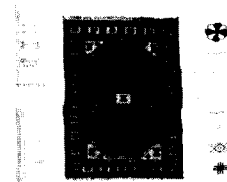
여러명의 아이를 가질수 있고 풍족한 가정을 꾸려나갈수 있다고 믿었다.

2)히야신스: 사랑, 행복, 충성을 상징한다.

3)카네이션: 이 모티브는 사랑과 충성, 평화, 천국의 정원을 표현으로써 갓 결혼한 신부에 의해서 직조된다.

13) 콘야 카작 (Konya kazak)

이 카펫은 가장 전형적인 유목민 문화를 나타낸다. 감정과 생각의 거의 모든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표현이 풍부한 모티브로 매우 숨씨있고 장식적인 카펫을 생산하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색은 담갈색, 벽돌색, 베이지같은 따뜻한 색을 사용한다. 기하학적인 디자인으로 눈 문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16〉 콘야 카작 카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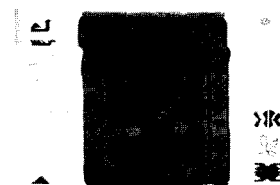
1)관목: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악마의 눈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2)하늘과 빛: 역사의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던 모티브의 원천이다. 하늘과 노을을 나타낸다.

3)초록: 봄과 천국의 색채이다.

14) 술탄한 (Sultanhan)

벨벳과 같은 긴파일이 표면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중앙 아나톨리안 카펫이다. 일반적으로 연분홍, 담청록색, 베이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티브는 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티브간의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단순한 형태이다. 술탄한 카펫은 단순성과 아름다운 색채로 인하여 매우



〈그림17〉 술탄한 카펫

온화하고 이상적인 장식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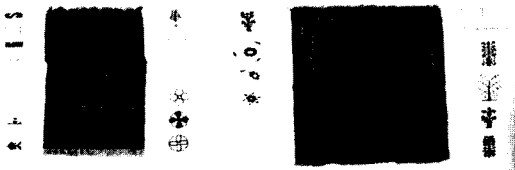
1)나뭇잎: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모티브이다.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과 더불어 죽고 새로 돌아 나는 잎과 더불어 탄생한다고 믿는다.

2)백조: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상징이다.

3)담청색과 청록색: 악마의 감정과 눈을 피할 수 있는 색이라고 믿는다. 청록색은 하늘의 청색과 봄의 초록을 이루는 신성한 색으로 여긴다.

15) 쿨라(Kula)

고대 카펫 중심지이었던 아나톨리아 서부의 유삭(Ushak)에서 기원되었다. 유삭과 스미르나(Smyrna) 항구사이에 위치한다. 또한 빈번하게 오랜세월 유럽귀족들의 저택을 장식해온 한스 홀바인의 그림에 나타나기 때문에 홀바인(holbein) 카펫라고도 한다. 오늘날에도 터키에서 서부 아나톨리아는 카펫 직조의 중심지이다. 17C 쿨라에서 시작되었고 18C, 19C, 20C에 걸쳐서 발전되었다는 것을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 박물관과 개인소장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크림색, 쿨라노랑, 담청색, 베이지색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그림18〉 쿨라 카펫

1)코너의 “S”: 사람의 목소리, 귀를 상징한다.

2)황금천칭: 죄와 좋은 일을 한 행위를 정확하게 저울질하여 판단하는 상징으로써 천국에 가길 염원하는 표시이다.

3)클로버(clover): 여러가지 모양의 4잎 클로버는 카펫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모티브 중의 하나이며 직조자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4)부케: 꽃다발은 눈앞에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천국의 정원을 상징한다.

5)서양자두 꽃: 새로 맞이한 신부를 상징한다.

6)아몬드 꽃: 신부가 되고 싶은 것을 의미한다.

7)나일락: 행복을 의미한다.

8)데이지: 봄의 메신저를 의미한다^{23,24}).

V. 결과 및 제언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예술로서 카펫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터키지역에 따른 직조기술, 전통염색, 섬유재료, 문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적 환경, 기후, 생활양식, 종교 등에 따라 문양과 사용하는 색채로 그 시대의 생활상이 표현되었다.

2) 직조의 경우 매듭이 있는 파일(pile)직조 형태의 카펫과 매듭이 없고 평면직조 형태이면서 표면에는 위사만 나타나는 킬림(kilim), 수막(soumak)이 있다. 다른 나라의 카펫과 다른 점은 카펫의 매듭이 2중 매듭이라는 점이다.

3) 섬유재료의 경우 유목민에 의하여 많이 사육되고있는 양모섬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4) 염색의 경우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재에서 추출한 염료를 사용하여 그 지방의 전통색화 하였다. 터키의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꼭두서니에서 추출할 수 있는 붉은 색, 인디고 식물을 발효시킨 인디고 염료의 짙은 감색, 양모의 천연색인 크림베이지색이 터키 카펫의 대표적인 전통색으로 나타났다.

5) 문양은 수세기를 이어오면서 그 지역의 문화, 직조자의 감성과 염원이 반영되면서 각기 독특하게 발전되었는데 어느 지역에서나 호부, 부귀, 다산, 행복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나라 각지역 특유의 전통색과 전통문양을 이용하여 카펫를 바닥에 놓고 볼 수 있는 예술작품화 한 제조기법도 독특하였지만 카펫를 판매하는 방법도 인상적이었다. 부피가 큰 다양한 카펫를 몇개라도 바닥에 깔아놓고 소비자의 의견을 물어 소비자 선호하지 않는 것은 하나씩 치워나가고 맨 마지막엔 소비자가 좋다고 하는 몇 개의 제품만 남겨놓은 후 다시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원하는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동안 소비자는

상점에서 제공된 툴립꽃 모양의 작은 유리잔으로 차를 마시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카펫을 선택만 하면 되었다. 서로 만족한 상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기분 좋은 악수를 청하였고 카펫 세탁법, 문양의 의미를 설명해주었으며 품질보증서를 주었다. 카펫의 품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케팅기법이 터키 카펫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통색, 전통문양을 이용한 카펫 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마케팅기법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Retrieved Feb. 10. 2004. from <http://www.carpetworldwide.net>
- 주1) 아라비아풍 (風)이라는 뜻으로서, 이슬람교 사원의 벽면장식이나 공예품의 장식에서 볼 수 있는 아라비아 무늬이다. 이슬람교도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절대로 반대하였다. 그 대신 신의 나라를 찬양하기 위한 아름답고 정교한 문양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아라베스크 문양이다. 문자·식물·기하학적인 모티프가 어울려서 교차된 곡선 가운데 융합되어 가는 환상적인 무늬이며 좌우대칭이다. 넓은 의미로는 유동적인 선에 꽃이나 과일, 짐승, 인물을 섞은 공상적인 무늬를 말한다.
- 주2) 두 개의 원기둥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3개의 아치이다.
- 2) Mehmet Ates (2001). Turkish Carpets: The Language of Motifs and Symbols. Aksiseda Matbaasi (Istanbul), pp.16-64.
- 3) 김승진, 오애경 (1991). 카펫의 내구성과 실의 꼬임 특성. *한국섬유공학회 91년 2차 학술발표 초록집*.
- 4) 허성수 (1981). 커트 파일 카펫의 압축변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영주 외 (1987). 카펫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실태와 선정한 카펫 시범포의 보존성 측정조사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6) 김동술 외 (2003). 카펫에서 방출되는 VOCs의 방출특성. *대한설비공학회 15(1)*, pp.40-49.
- 7) 김일수 (1997). 내장재 연소 및 독성가스 발생특성연구: 방화카펫 방화 후.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백용규 (1999). 카펫 오염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축설비학회지*.
- 9) 김상남 (1984). 한국 현대카펫 문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강숙완 (1992). 터키 카펫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11) 박의순 (1982). 東洋 Carpet의 歷史的 考察 : 手織 Carpet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정미실 (2001). 양탄자시대 Navajo 직물의 발달에 대한 연구: 지역적 스타일 양탄자시대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51(1)*, pp.97-104.
- 13) 김영란 (1984). 자수직 페트문양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적 문양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14) 권유리 (2000). 고려시대 도자문양을 이용한 카펫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작품 제작을 중심으로. 강릉대학교 산업대학원.
- 15) 이종복 (2002). 고부가 하이테크 섬유: PTT 소재 카펫의 개발동향 및 미래 섬유기술과 산업. *한국섬유공학회 6(1.2)*, p.41.
- 16) Retrieved Feb. 15. 2004. from <http://www.turkeytour.co.kr>
- 17) Mehmet Ates (2001). Op. cit., pp.10-12.
- 18) Retrieved Feb. 10. 2004. from <http://www.carpetworldworldtodaynews.com>
- 19) Retrieved Feb. 10. 2004. from <http://www.worldtodaynews.com>
- 20) David, B. (1985). Rugs & Carpets.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64.
- 21) Mehmet Ates (2001). Op. cit., pp.12-16.
- 22) Naci E. A. (2003). Turkish Handmade Carpets, Hitit Color, pp.22-28, pp.39-40.
- 23) Mehmet A. (2001). Op. cit., pp.23-64.
- 24) Naci E. A. (2003). Op. cit., pp.43-94.